사회적 범주의 암묵적 표상 구조 : 성별 고정관념의 비대칭적 점화효과*

Implicit Representations of Social Categories: Asymmetrical Priming Effects on Gender Stereotype

이 재 호** 조 긍 호***
(Jae-Ho Lee) (Geung-Ho Cho)
오 경 기**** 김 미 라****
(Kyung-Kee Oh) (Mi-Ra Kim)

요 약 본 연구는 사회 범주인 성별 고정관념의 암묵적 표상 구조의 특성을 살펴보기 위해서 실시되었다. 사회 범주는 일반 대상이나 행위의 범주에 비해서 평가적 속성의 비중이 크며, 그 표상 구조도 분명하지 않다는 연구들이 있었다. 세 개의 실험에서 성별 고정관념의 평가적 속성을 통제하여 암묵적 표상의 구조를 확인하고자 하였다. 각 실험은 점화-목표 자극쌍의 SOA 조건을 변화시켰다. 그 결과, 짧은 SOA (250-500ms, 실험 1과 실험 3)에서는 여성-여성 단어쌍이 남성-남성 단어쌍이나 교차 자극쌍에 비해서 점화효과가 크게 나타났다. 반면에 긴 SOA (1000ms, 실험 2)에서는 단어쌍 조건간의 점화효과의 차이가 사라졌다. 사회 범주로의 성별 고정관념은 암묵적 수준에서는 여성과 남성의 범주 대비가 분명하지 않았으며, 여성 범주가 남성 범주에 비해서 속성간 점화효과가 크지 않았다. 이는 두 범주가 비대칭적으로 표상될 가능성을 시사하였다.

주제어 Gender stereotype, Social categories, Priming effect, Naming task

Abstract This study was conducted to explore the implicit structure of gender-stereotype which is one of the social categories. Social categories were considered to have the more evaluative properties and unclear hierarchical representations compared to the objects or the action categories. In this series of experiments, we want to examine the generalizability of the congruent effect into gender-stereotype using a priming paradigm and introducing the various SOA (stimulus onset asynchrony, SOA 250ms to 1000ms). The results of Experiment 1 and 3 (SOA 250-500ms) showed that the priming effects of female-female condition was larger than the other conditions. However, Experiment 2 (SOA 1000ms) showed that the priming effects among the conditions disappeared. We found the female-congruent effects only in a short SOA. These results suggest the possibility that the gender-stereotype in the automatic and implicit processing level can be represented by the cross-categorical structure in some cultural area.

* 이 논문은 1999년도 한국학술진흥재단의 협동과제지원에 의하여 되었음(KRF-1999-042-C00221 C5001). 이 논문의 실험 진행에 도움을 준 최현용에게 감사를 드리며, 세심한 심사를 하여 주신 두 분의 심사위원께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린다.

** 중앙대학교 심리학과 (Chung-Ang University)
*** 서강대학교 교양과정부 (Sogang University)
**** 고려대학교 심리학과 (Korea University)

사회적 인지의 연구는 인지 일반의 물리적 대상이나 행위보다는 대인의 표상과 과정에 관심을 가져왔으며, 인지 일반의 표상 및 처리의 이론적 틀에 근거하여 사회적 정보의 다양한 처리과정을 설명하고 있다[1][2][3]. 전통적 사회인지 현상을 인지적 관점에 따라 접근한 대표적인 연구분야로는 고정관념(stereotype)이나 편견(prejudice)에 관한 자동적 처리와 암묵적 표상 등을 들 수 있다[4][5][6]. 고정관념이나 편견은 대인에 대한 지식, 태도, 정서 및 행동에 관한 표상이다[2]. 대인 정보가 제시되면 이들 표상의 활성화에 의해서 대인의 인상형성, 대인추론 및 인과귀인의 과정들이 발생한다. 이 과정에서 고정관념이나 편견은 의식이나 책략에 근거한 처리가 아니라 암묵적 수준에서 자동적으로 발생한다는 것이다[2][4][6]. 대인의 사회적 정보처리는 대인의 모든 정보를 수집하고 종합하여 총체적으로 판단하는 인지 과정이기보다는 고정관념이나 편견에 의해서 부분적인 정보에 근거해서 순간적으로 판단이 이루어지는 과정인 것이다[6][7][8].

사회적 인지의 연구가 인지 일반의 이론과 연구 방법을 채택하고 있지만(예, [2]) 사회 인지의 연구가 역으로 인지구조와 과정의 일반적 특성을 이해하는데 중요한 단서를 제공해주고 있다. 인지 일반의 표상이론은 태도, 정서, 평가와 같은 속성의 표상을 비교적 간과해 왔다. 따라서 사회 인지에서의태도나 정서의 정보처리적 특성은 인지 일반의 표상과 처리의 이해를 확장시킬 수 있다. 즉 사회 인지의 연구는 인지 일반의 대상과 행위 중심의 연구로부터 대인, 자신, 태도 및 믿음과 같은 메타인지(meta-cognition)의 연구영역으로 주제를 확장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러한 배경에서 사회 인지의 표상 및 과정의 특성과 인지 일반의 그것과의 관계를 규명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사회적 지식과 태도의 표상체계인 고정관념은 인지 일반의 표상과 어떤 관련성을 지니는가? 대상이나 행위와 같은 인지 일반의 표상은 상위와 하위의 개념이 위계적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위계는 구성원간의 속성 유사성에 근거하여 단계적 표상을 구성하고 있다고 본다[2]. 그렇다면 고정관념도 인지 일반과 동일한 구조의 표상을 구성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가하는 의문이 제기되었다. 성별 고정관념과 인종 편견분야의 연구는 대부분 정서적, 평가적 과정에만 초점을 두어 왔다[6]. 그러나 고정관념과 편견의 범주와 속성 자체는 인지적 특성을 지닌 것이기에 인지 일반의 표상 특성인 위계적 표상과 단계적 표상의 특성이 내재되어 있는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9][10]. 따라서 본 연구는 일반 대상 범주의 상위-하위 위계적 표상구조가 사회적 범주중 특히 성별범주 표상에서도 나타나는가를 확인하고자 하였다.

고정관념의 자동적 평가와 일치성 효과

성별 고정관념과 인종 편견의 연구는 Neely의 자동적 처리(automatic processing)와 통제적 처리(controlled processing)의 구분에 근거하고 있다[12]. 자동적 처리는 처리자의 의식 개입이 작용하지 않는 상황에서 일어나는 인지적 과정을 의미하며, 통제적 처리는 처리자의 의식적 개입이 작용되는 인지적 과정을 의미한다. 따라서 자동적 처리는 통제적 처리에 비해서 처리 속도가 빠르면서 인지 자원의 소모량도 적어진다. 예를 들어, '의사'라는 단어를 제시하면 '간호사'라는 단어가 자동적으로 활성화되지만, '동물원'라는 단어는 자동적으로 활성화되지는 않는다. 동일한 자극에 대한 반응으로 간호사가 제시된 경우가 동물원이 제시된 경우에 비해 반응이 빠른 것은 의사를 보는 순간 간호사에 대한 의미적 점화(priming)가 자동적으로 발생했기 때문이다. 이러한 의미적 점화는 후속 반응 행동에도 영향을 미치게 된다[6].

사회적 지식의 평가과정(evaluative processing)의 자동성도 동일한 맥락에서 설명되었다. Fazio 등은 평가적 형용사 단어를 참가자에게 먼저 제시한 다음 두 번째 단어를 300ms 후에 제시하고, 두 번째 단어에 대한 긍정-부정 판단을 하도록 하였다[4]. 그 결과, 첫 단어와 둘째 단어가 평가적으로 일치하는 단어조건이(예, 긍정-긍정) 일치하지 않는 단어조건(예, 긍정-부정)에 비해 판단시간이 빨랐다. Bargh 등은 형용사 평가과제의 자동적 효과를 엄격하게 통제하기 위해서 평가과제 대신 형용사의 제시시간과 과제를 달리 사용하였다[5]. 단어 쌍간 제시시간을 250ms로 통제하고 명명과제를 사용하였다. 그 결과, 이 두가지 실험조건을 통제하였을 경우에도 평가과정의 자동적 효과를 관찰할 수 있었다. 이 들은 사회적 지식의 자동적 평가과정에서 맥락이나 점화 자극이 목표 자극과 평가가 일치되는 경우가 일치되지 않는 경우에 비해서 평가반응이 빨라지는 현상을 평가의 일치성 효과(congruency effect)로 명명하였다[4][13][14]. Bargh 등은 자동적 평가는 평가적 태도의 연합 강도에도 영향을 받지 않고 일관되게 관찰된다는 증거를 제시하였고[13], Greenwald 등은 점화단어를 역치하로 제시한 경우에도 일치성 효과가 일관되게 관찰된다는 증거를 제시하였다[14]. 자

동적 평가의 일치성 효과에 관한 연구 결과들은 인지 일반의 자동적 의미점화가 사회적 지식의 평가점화에도 적용될 수 있다는 가정을 확인해 주었으며, 또한 사회적 지식에서는 정서적 혹은 평가적 차원이 표상의 중요한 변인임을 시사해 주고 있다.

극단적 자극쌍의 역점화 효과

Glaser와 Banaji는 자동적 평가의 일치성 효과를 다양한 사회적 범주에 확대 적용하여 음식, 일반 및 인종의 범주에서 평가의 일치성 효과가 동일하게 나타나는지를 확인하고자 하였다[15]. 각 범주의 개념을 긍정-부정의 평가 차원으로 분류하고 이들 개념들과 평가 차원을 점화자극과 목표자극의 쌍으로 제시하고 제시 조건을 완전 교차하는 방식으로 목표 단어의 명명시간을 측정하였다(SOA 150-300ms)[1]. 이들의 연구결과에서 음식이 점화단어로 제시되고 인종 단어(예, 흑인과 백인)가 목표단어로 제시된 경우에는 평가의 일치성 효과가 관찰되었지만, 일반 단어를 점화단어로 제시한 다음 인종 단어의 명명시간에서는 반대의 결과를 얻었다. 부정 일반 단어를 점화로 제시하고, 부정 흑인 단어를 목표 단어로 제시한 조건이 긍정 일반 단어를 점화로 제시한 경우에 비해서 반응시간이 느리게 나타났다. 즉 평가가 일치하는 조건(예, 긍정-긍정 혹은 부정-부정)이 불일치하는 조건(예, 긍정-부정 혹은 부정-긍정)에 비해서 반응시간이 느려지는 역점화 효과(reverse priming effects)가 관찰되었다. Glaser와 Banaji는 이러한 역점화 효과의 일반화를 위해서 점화 자극을 극단적 평가 자극과 보편적 평가 자극으로 구분하여 반응시간을 측정하였다. 그 결과, 보편 자극에서는 일치 효과가 관찰되었지만 극단 자극에서는 역점화 효과가 일관되게 관찰되었다[15].

역점화효과는 일반적인 의미 관계에서 나타나는 동화적(assimilation) 점화와는 매우 다른 양상인 것이다. 의미 점화효과는 자극쌍의 의미적 연합이 강할수록 그 효과가 커지며 약할수록 적어지는 것이다. 의미점화의 측면에서는 일반 부정단어와 흑인 부정단어는 부정적이라는 측면에서 일치하는 단어이기에 동화적 점화효과를 예측할 수 있다. 따라서 부정-부정 자극쌍이 부정-긍정 자극쌍에 비해서 반응이 빨라야 한다. 그러나 Glaser와 Banaji의 연구에서는 부정단어나 긍정단어 모두 대비적(contrast) 점화가 나타났다. 이는 역점화 효과는 긍정과 부정의 차원이 평가점화에 동일하게 작용하기보다는 평가의 극단 정도가 평가과정에 다르게 작용할 가능성을 시사한 것이다[15].

긍정적 평가의 우위성 효과

Klauer 등은 성격 특질(traits)을 사용하여 일치성 효과를 살펴보았다[16]. 특질을 일치조건(예, 긍정-긍정 혹은 부정-부정)과 불일치조건(예, 긍정-부정 혹은 부정-긍정)으로 구분하여 참가자에게 제시하고 목표단어가 긍정인지 부정인지를 판단하는 과제를 수행하도록 하였다. 그 결과, SOA 0ms 에서는 일치성 효과가 관찰되었지만 SOA 100ms 조건과 200-1200ms 조건에서는 일치조건과 불일치조건의 차이가 관찰되지 않았다. 더불어 일치성 효과에 대비되는 결과로서 긍정-긍정 조건이 부정-부정 조건에 비해서 평가의 판단이 빠르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de Houwer, Hermans, 및 Spruyt의 연구에서도 동일하게 관찰되었다[17]. 정서적 점화에서 긍정단어가 부정단어에 비해서 점화효과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단지 목표단어를 손상시킨(degradation) 경우에만 일치성 효과가 관찰됨을 보였다. 이재호 등의 성별 선호도의 점화효과 연구에서도 이와 유사한 결과를 관찰하였다[18]. 이 연구에서 점화단어와 목표단어의 긍정-부정 일치성 효과를 살펴보았을 때 긍정 일치성 효과가 뚜렷하게 관찰되었다. 즉 긍정-긍정 조건이 부정-부정 조건에 비해서 점화효과가 크게 나타났다.

이들 연구의 공통적인 특징은 긍정-긍정의 단어쌍이 부정-부정의 단어쌍에 비해서 점화효과가 크다는 것이다[16][17][18]. Rudman, Greenwald, 및 McGhee는 성별 고정관념을 IAT(Implicit Association Test) 과제를 사용하여 자동적 평가의 암묵적 과정을 살펴보았을 때, 여자는 남자에 비해서 'warmth'에 강한 연합을 보였으며, 남자는 여자에 비해서 'power'에 강한 연합을 보였다[19]. 이는 자신의 생물학적인 성(sex)과 심리사회적 성별(gender)이 일치하는 평가에 민감하다는 증거가 될 수 있다. 그러나 두 성의 참가자는 남성이든 여성이든 암묵적 측면에서는 자신을 바람직한 특질로 연합하려는 경향이 내포되어 있음을 보였다. 바람직한 특질은 부정적 특질보다는 긍정적 특질을 의미하며 이 연구에서 긍정-긍정의 단어쌍이 부정-부정의 단어쌍에 비해서 점화효과가 크게 나타난 것은 남자와 여자 모두 성별 고정관념의 부정적 특질보다는 긍정적 특질을 선호한다는 증거가 될 수 있다.

---

1) SOA(stimulus onset asynchrony)는 점화 자극이 제시되는 시점에서부터 목표 자극이 제시되는 시점사이의 시간이다. 즉 점화 자극이 제시되는 시간과 점화 자극과 목표 자극이 제시되는 사이 시간을 포함한다.

일치성 효과의 재해석

최근의 고정관념과 편견의 자동적 평가에 관한 연구는 초기의 연구[4][13]와는 상반된 결과를 보이고 있다. 예를 들어, 평가 극단치의 역점화 효과[15]나 평가의 긍정성 우위 효과[16][17][18] 등이 보고되었다. 이는 사회적 평가과정이 인지 일반의 의미적 점화과정과는 다른 제약이 작용한다는 증거로 볼 수 있다. 평가적 과정의 점화효과가 의미적 점화효과에서부터 적용되었다면[20], 일치성 효과는 사회 범주의 유형이나 특성에 관계없이 점화-목표 자극의 평가가 일치하면 평가 반응이 촉진된다는 예측을 할 수 있다. 그러나 역점화 효과는 점화-목표 자극의 평가의 극단성은 오히려 평가 반응을 느리게 한다는 증거를 제시하였고, 긍정성 우위 효과에서는 긍정-긍정 쌍이 부정-부정 쌍에 비해서 평가 반응이 빠르다는 증거를 제시함으로써 일치성 효과의 일반화 범위가 제한되게 되었다. 일치성 효과가 평가의 강도, 평가의 유형, 사용 과제, 고정관념 유형 등의 특성에 따라 유통적으로 변화할 가능성이 제기된 것이다.

Deaux와 Lewis에 따르면 고정관념은 성격 특질, 물리적 특성, 역할, 및 직업 등을 독립된 구성 요소로 범주화되어 있다는 주장을 하였다[21]. 그러나 사회적 범주의 대비적 관계는 대상과 행위와 같은 인지 일반의 범주처럼 명확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10]. 또한 Rudman 등은 고정관념의 활성화 과정에서 성별 평가, 성별 범주 및 자신 관련성 등이 복잡하게 상호작용한다는 주장을 하였다[19]. 예를 들어, 권투선수 '타이슨'에 대한 일반적 평가와 남성으로서의 평가 및 직업인으로의 평가가 상이하게 달라질 수 있다. 이는 사회적 대상이 어떤 범주로 분류되는지에 따라서 평가적 속성의 활성화 양상은 달라질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2][24]. 고정관념과 편견의 연구분야에서는 범주적 표상의 중요성을 인식하고는 있지만 평가적 속성에 대한 연구가 주류를 이루었다[2][6][10].

연구문제

지금까지 고정관념이나 편견의 연구는 정서적 혹은 평가적 과정에 초점을 두었다. 그러나 전통적인 일치성 효과에 대비되는 결과들이 제시됨으로써 고정관념의 일치성 효과가 의미 점화와 일치하는지에 의문이 제기될 수 있다. Glaser와 Banaji의 연구에서 음식 범주와 일반 범주의 점화효과가 다르게 나타난 것은 음식과 일반 범주가 인종 범주와는 그 대비적 정도가 다를 가능성이 있으며, 대비적 정도가 의미적 점화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높다[15]. 음식 범주를 점화어로 제시하면 정적 일치성 효과가 관찰되었지만 일반 범주를 제시하면 역 점화 효과가 관찰되었던 것은 평가의 극단성이 작용했을 가능성과 더불어 범주간의 의미적 대비효과가 작용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따라서 고정관념의 표상에 범주적 표상 특성이 작용하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먼저 남성-여성의 범주 속성에 대한 점화효과를 통해서 평가의 일치성 효과를 반복 확인하는 것과 함께 두 성별 범주 자극쌍의 점화효과를 비교해 보고자 하였다. 둘째는 평가적 과정이 자동적으로 발생하듯이 사회적 범주 속성의 활성화도 자동적으로 일어나는지를 확인하고자 하였다. 즉 시간경과적 접근과 명명과제를 사용하였다. 셋째는 사회적 범주의 활성화는 자신(self)과의 일치성 여부가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다[19]. 이를 확인하기 위해서 참가자의 성(sex)에 따른 일치성 효과를 확인하고자 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는 점화-목표 자극쌍의 SOA를 달리하여 세 개의 실험을 수행하였다(실험 1은 SOA 250ms, 실험 2는 SOA 1000ms, 실험 3은 SOA 500ms). 일반적으로 단어쌍 점화에서는 SOA 150-300ms를 자동적 과정을 반영하는 시간간격으로 간주하고 있다[15][16]. 따라서 실험 1과 실험 3은 범주 점화의 자동적 과정의 효과를 관찰하기 위한 것이며, 실험 2는 참가자의 전략적 과정이 개입되는 경우의 범주 점화효과를 관찰하기 위한 것이다. 본 연구에서의 실험과제로는 참가자의 전략이나 목표자극에 의한 역점화 효과에는 둔감하지만 의미적 점화효과에는 민감하게 작용하는 명명과제를 목표단어에 사용하였다[23].

실험 1: SOA 250ms

사회적 범주 표상의 자동적 점화효과를 확인하는 것이 실험 1의 주된 목적이었다. 사회적 범주의 평가적 과정을 통제하였을 경우에 사회적 범주의 표상이 인지 일반의 범주 표상과 유사한 특성을 지니고 있는지를 확인하고자 하였다. 이는 사회적 범주의 연구가 의미적 표상을 기본 전제로 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보면, 역점화 효과[15]나 긍정성 우위효과[6][18]는 의미적 점화 효과와는 대비되는 현상이다. 따라서 고정관념이 의미적 표상과 평가적 표상의 상호작용적 구성체라는 가정하에서 평가적 과정의 효과를 통제해야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실험 1은 성별 고정관념의 범주 속성 활성화의 자동

적 과정을 살펴보기 위해서 점화-목표 자극쌍의 SOA를 250ms로 고정시켰고(점화단어 150ms, 지연시간 100ms), 목표단어에 대한 통제적 처리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명명과제를 사용하였다. 실험변인은 점화조건(여성, 남성)과 목표조건(여성, 남성) 및 참가자의 성(여자, 남자)이었다. 일치성 가설에 따르면 점화-목표의 단어쌍이 일치하는 조건이 불일치하는 조건에 비해서 점화효과가 크게 나타나야 한다[4][5]. 즉 남성-남성, 혹은 여성-여성의 범주내의 점화는 남성-여성 혹은 여성-남성의 범주간의 점화에 비해서 그 효과가 크게 나타나야 하며 점화-목표 조건간의 상호작용을 예측할 수 있다. 참가자 성의 변인은 참가자와 일치하는 성별 조건에 대한 활성화가 빠를 것이라는 예측을 하였다. 즉 남자는 남성 속성에 대한 활성화가 빠르며, 여자는 여성 속성에 대한 활성화가 빠르게 일어날 것이다[19]. 이 또한 일치성 가설에 근거한 것으로 참가자 성과 실험조건 간의 상호작용을 예측하였다.

방 법

참가자: 중앙대학교에 재학중인 대학생 52명이 실험 1에 참가하였다. 이중 여학생은 24명이었으며, 남학생은 28명이었다.

실험설계: 독립변인으로 점화조건(여성단어, 남성단어), 목표조건(여성단어, 남성단어)은 피험자내 변인이었으며, 참가자의 성(여자, 남자)은 피험자간 변인이었다. 2*2*2 혼합요인설계를 적용하였다.

실험재료: 이재호 등[29]의 연구에서 조사된 성별 속성 단어를 사용하였다. 참가자의 성별 범주의 전형성 점수에 근거하여 남성과 여성의 범주에서 각각 전형성 점수가 높은 단어 10개씩과 낮은 단어 10개씩을 선별하였다. 남성 단어 20개와 여성 단어 20개, 모두 40개의 성별 속성 단어가 실험 단어로 선정되었다. 각 단어는 명사나 형용사로 구성되었으며, 글자의 길이는 2-3자로 통제하였다(부록 1 참조). 또한 두 범주의 성별 전형성의 평정치와 평가적 과정에 작용할 수 있는 긍정-부정 선호도의 평가치를 통제하였다. 두 범주에서 선정된 단어들의 성별 전형성(평정치: 여성은 4.4, 남성은 4.4)과 선호도(평정치: 여성은 3.7, 남성은 4.2)의 평정치의 평균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다. 그러나 전형성과 선호도 평정치 점수간의 상관은 r=.45이었으며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p<.005$). 이는 전형성과 선호도 평정치를 완전하게 독립적으로 분리할 수 없다는 증거가 된다. 각 단어는 실험조건에 근거하여 네 유형의 점화-목표 단어쌍으로 구성되었다. 단어쌍은 여성-여성, 여성-남성, 남성-여성, 남성-남성이었으며, 각 조건에는 10개씩의 점화-목표 단어쌍이 할당되었다. 같은 단어가 점화와 목표 조건에 각각 한번씩 제시되도록 하였다. 참가자는 모두 40개의 목표단어에 대해서 명명반응을 하도록 하였다. 연습시행은 모두 10시행으로 구성되었으며 연습시행에 사용된 단어는 실험재료와 무관한 명사와 형용사가 사용되었고, 실험단어와 의미적 관련성이 없는 단어들이었다.

실험절차: 실험은 개인별로 컴퓨터를 이용하여 실시되었다. 실험의 지시문은 컴퓨터 화면에 제시되었고, 참가자가 스스로 키보드를 사용하여 지시문을 이해하도록 하였다. 실험 절차는, 먼저 컴퓨터 화면에 '****' 표시가 500ms동안 제시되었고, 그 표시가 사라지면 점화단어가 150ms동안 제시되었다. 점화단어가 제시된 후 100ms가 경과된 다음 목표단어가 제시되었다(SOA 250ms). 실험자는 참가자에게 점화단어가 나타나면 그 단어의 제시 여부만 확인하게 하였고, 단어의 의미를 파악하거나 의식적으로 기억하지 못하게 지시하였다. 또한 점화단어 이후에 목표단어가 화면에 제시되면 참가자에게 준비된 마이크에 신속하고 정확하게 목표단어를 소리내어 발음하도록 하였다. 마이크에 발성된 신호는 사운드 카드를 통해서 컴퓨터로 입력되었고, 반응시간은 목표단어가 화면에 제시된 시점부터 참가자가 단어의 발음을 개시하는 시점까지의 시간이며, 이 시간은 컴퓨터의 프로그램에 의해서 파일로 기록되게 하였다. 그런 다음, 동일한 시행이 같은 절차로 반복 진행되었다. 한 시행과 다음 시행간의 시간간격은 1000ms였다. 본 실험이 실시되기 전에 실험절차의 이해와 명명반응을 숙지시키기 위해서 10번의 연습시행을 실시하였다. 연습시행에 사용된 단어는 본 실험에서 사용되지 않았던 단어였다. 본 실험의 시행절차는 연습시행과 동일하였다. 참가자는 모두 40개의 점화단어-목표단어 자극쌍에 대한 반응을 하였다. 실험에 사용된 컴퓨터는 IBM/PC 486 기종이었으며, 실험 프로그램은 Quick Basic으로 구성하였으며, MS-DOS 6.20상에서 수행되게 하였다. 실험에 소요된 시간은 약 15분이었다.

결과 및 논의

명명과제에서 목표단어 명명오류는 거의 없었다. 반응시간이 200ms 이하인 반응과 표준편차 3이상인 반응(761ms)은 분석에서 제외시켰다(1.8%). 목표단어의 명명시간 평균이 표 1에 제시되었다. 명명시간을 변량

분석한 결과, 점화조건과 목표조건의 주효과가 각각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점화조건: $F(1,50)=4.19$, $MSe=299.88$, $p<.05$; 목표조건: $F1(0,51)=20.59$, $MSe=195.93$, $p<.0001$). 점화조건에서는 여성단어(517ms)가 남성단어(522ms)보다 명명시간이 5ms 빨랐으며, 목표조건에서는 여성단어(515ms)가 남성단어(524)보다 명명시간이 9ms빨랐다. 두 변인간의 상호작용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다. 참가자 성에서는 여자(505ms)가 남자(535ms)보다 명명시간이 30ms 빨랐지만,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았다 ($F(1,50)=3.18$, $MSe=14448.28$, $p=.08$). 그런데 목표조건과 참가자 성간의 상호작용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F(1,50)=5.63$, $MSe=195.93$, $p<.05$). 단순주효과 분석에서, 여자는 여성조건(503ms)과 남성조건(507ms)간의 차이가 4ms 였지만 통계적인 차이는 없었다. 반면에 남자는 여성조건(528ms)이 남성조건(542ms)보다 명명시간이 14ms빨랐으며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t(51)=4.01$, $p<.001$). 단어쌍 조건별로 보면, 여성-여성(514ms)이 남성-남성(527ms)보다 13ms빨랐으며($t(51)=4.49$, $p<.001$), 여성-남성(521ms)과 남성-여성(517ms)의 교차조건의 차이는 4ms에 불과하였다.

실험 1의 결과는 성별 고정관념의 범주적 표상에서 평가적 과정에서 나타났던 일치성 효과는 나타나지 않았다. 반면에 여성-여성 조건이 남성-남성 조건에 비해서 명명시간이 빨랐으며, 교차조건은 그 중간에 위치하였다. 이들 조건의 명명시간의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 여성 범주의 속성간의 동화적 점화가 남성 범주에 비해서 높다는 것을 반영한다. 이러한 결과는 성별 선호도의 평가적 과정에 관한 이재호 등[18]과, Klauer 등[16]의 연구 결과와 일치한다. 여성 범주의 속성간 의미적 응집성이 남성 범주의 속성에 비해서 높을 가능성이 있다. 조건간의 명명시간이 여성-여성(교차(남성-남성 순으로 나타난 결과를 보면 성별 범주의 표상은 성별을 상위 개념으로 하여 여성과 남성으로 대등하게 분리된 범주로 표상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 만약 남성과 여성이 범주적으로 표상되어 있다면 남성내 속성간과 여성내 속성간 점화의 크기가 같아야 하고, 교차성별의 점화보다 커야한다. 그러나 실험 1의 결과는 예측과는 상이한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오히려 성별의 평가적 점화 양상과 유사한 패턴을 보이고 있다. 이는 성별의 전형성과 선호도가 연관이 있다는 것이며(두 평정치간의 상관이 .45), 사회적 범주는 평가적(혹은 정서적) 속성이 표상의 주요한 요인임을 반영한다고 볼 수 있다.

참가자 성에서는 여자가 남자에 비해서 성별 속성에 대한 명명시간이 빠른 경향을 보였으며, 참가자 성과 목표조건과의 상호작용이 나타났다. 여자는 여성과 남성에 대한 명명시간의 차이를 보이지 않았지만 남자는 남성 단어보다 여성 단어에 명명시간이 빨랐다. 이 또한 Rudman 등[19]의 자신의 성과 일치하는 성별에 대한 일치성보다는 긍정적 평가에 민감하다는 결과와 일치하는 것이다. 여자는 남성=여성 속성이었으며, 남자는 여성<남성 속성인 것은 성별 일치성과는 거리가 있다. 남자나 여자나 긍정성과 여성의 성별 속성에 차별적이지 않다는 것이 특이하며, 남자도 남성보다 여성의 속성에 민감하다는 것은 성별 전형성에서 여성 속성이 남성 속성보다는 참가자 성에 관계없이 민감한다는 것을 반영하는 것이다. 실험 1은 범주 활성화의 자동적 과정을 반영하는 패러다임을 사용하였다는 점에서 이들 결과는 사회적 범주의 자동적이며 암묵적인 표상 특성을 반영하는 결과로 해석될 수 있다. 그러면 참가자의 통제적 과정이 반영되는 경우에는 어떤 변화가 나타날 것인가?

〔표 1〕 점화-목표 조건에 따른 목표 단어의 명명시간의 평균 (ms)

	SEX	WW	MM	MW	WM	CE	PPE
실험 1	F	499(65)	511(69)	506(63)	503(63)	-1	12*
(SOA 250ms)	M	528(58)	544(57)	528(55)	539(60)	-5	16*
		515(62)	529(64)	518(59)	523(63)	-3	14*
실험 2	F	491(55)	492(51)	491(48)	493(59)	1	1
(SOA 1000ms)	M	500(53)	508(63)	500(59)	501(53)	-7	8
		496(54)	500(58)	496(54)	497(55)	-3	4
실험 3	F	473(68)	489(65)	482(66)	482(73)	2	16*
(SOA 250ms)	M	534(64)	542(76)	541(65)	545(72)	10	8
		513(70)	524(76)	521(71)	523(77)	7	11*

* WW(여성점화-여성목표) MM(남성점화-남성목표) MW(남성점화-여성목표) WM(여성점화-남성목표), CP(congruency effect)=((MW+WM)-(WW+MM)), PPE(positive priming effect)=(WW-MM), * 표는 $p<.05$, ( ) 안은 표준편차

실험 2: SOA 1000ms

실험 1에서는 범주내 속성의 점화가 여성과 남성에서 서로 다르게 나타났다. 즉 여성이 남성에 비해서 범주내 속성간 점화효과가 크게 나타났고, 참가자 성에 따라서도 여자와 남자가 모두 여성 범주의 속성에 민감하게 반응하였다. 이는 자동적이며 암묵적 수준에

서의 성별 고정관념의 비대칭적 범주 표상 특성을 나타낸 것이다. 실험 2는 성별 고정관념의 범주 일치성 효과를 SOA 1000ms에서 살펴보고자 하였다. SOA를 늘리게 되면 참가자의 통제적 평가가 작동될 가능성이 높다[12]. 즉 실험 2는 평가의 전략적 혹은 의도적 작동 가능성이 높은 조건에서 성별 범주의 점화효과에 어떤 변화가 나타나는지를 관찰하고자 하였다. Klauer 등의 연구에 따르면 긍정성 우위효과가 SOA 600ms이후부터 사라지는 결과를 보였고[16], 이재호 등의 연구에 따르면 성별 선호도에서 나타났던 긍정성 우위효과가 500ms이후에서 사라지는 결과를 얻었다[18]. 비록 이들 연구가 성별 범주의 전형성 연구가 아니지만 실험 1에서는 성별 전형성과 성별 선호도의 유사한 측면이 나타났고, 성별 선호도가 전형성과 밀접한 연관이 있다는 측면에서 보면 유사한 결과를 예측할 수 있었다. 특히 Murphy 등은 사회적 범주는 범주적 표상의 구조가 대상이나 행위의 인지 일반의 범주적 표상에 비해서 범주 위계가 미약할 가능성이 높다는 주장을 하였다[10]. 이들 연구가 점화패러다임을 사용한 연구가 아니기에 그들의 연구에는 참가자의 전략적 처리가 작용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따라서 실험 2는 실험 1에서 나타났던 성별 범주의 특성이 약화될 가능성이 있다는 예측을 하였다.

방 법

참가자: 중앙대학교에 재학중인 대학생 41명이 실험 2에 참가하였다. 이중 여학생은 19명이었으며, 남학생은 22명이었다.

실험설계: 실험 1과 동일하였다.

실험재료: 실험 1과 동일하였다.

실험절차: 일반적 절차는 실험 1과 동일하였다. 단지 점화-목표 단어쌍의 SOA를 1000ms로 증가시켰다. 점화단어를 500ms제시하고, 500ms 지연 후에 목표단어를 제시하였다. 이 시간은 참가자가 점화단어를 충분하게 확인할 수 있는 시간이며, 의도적으로 범주 단어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시간이다.

결과 및 논의

명명과제에서 목표단어 명명오류는 거의 없었다. 반응시간이 200ms 이하인 반응과 표준편차 3이상인 반응(716ms)은 분석에서 제외되었다(1.7%). 목표단어의 명명시간 평균이 표 1에 제시되었다. 명명시간을 변량분석한 결과, 점화조건, 목표조건, 참가자 성의 주효과와 상호작용 모두 통계적인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실험 2의 결과는 실험 1의 결과와는 매우 다른 것이었다. 모든 실험 변인의 효과가 사라졌다는 것이다. 이는 성별 고정관념의 자동적 처리과정과는 달리 통제적 처리과정이 수행되는 조건에서는 성별 범주의 활성화가 충분하게 활성화되고 그 활성화 정도는 성별 범주간에 차이를 나타내지 못하는 수준이 된다고 보여진다. 이는 성별 고정관념 성격특질의 평가판단과제의 연구나[16] 성별 고정관념의 속성 선호도의 명명과제에서 나타난 결과와 일치한다. 특히 사회적 범주 표상의 위계 미약성을 주장한 연구와 일치하는 결과이다[10]. 그러면 이러한 효과가 나타나는 경계수준은 어디인가? 자동적 과정과 의도적 과정이 구분되는 시점을 SOA 500ms 전후로 간주한다면[12], 이 시점에서는 어떤 변화가 나타날 것인지를 알아볼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이재호 등[18]의 연구에서도 SOA 500ms에서부터 긍정성 우위 효과가 사라짐을 보였다.

실험 3: SOA 500ms

실험 1과 실험 2는 매우 대조적인 결과를 보이고 있다. 실험 1이 자동적 점화효과를 반영한 것이고, 실험 2가 통제적 과정을 반영하는 것이라면 성별 범주에 대한 여성성 우위 효과는 자동적 과정에서 발생하는 성별 범주의 특성으로 볼 수 있다. 실험 3은 실험 1의 결과를 반복할 수 있는지를 확인하고자 실시되었다. 실험 3은 SOA를 500ms로 고정하였다. 이 SOA는 자동적 과정을 반영하는 경계가 된다[12]. Klauer 등의 연구에서는 SOA 600ms이후에서는 긍정특질의 우위 효과를 얻지 못하였다[16]. 그들은 긍정-부정의 평가과제를 사용하였기 때문에 이 경계에서 이미 반응 전략이 작용하여 전략적 평가를 하였을 가능성이 높다. 즉 과제와 SOA 간의 교환효과가 작동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따라서 SOA 500ms는 명명과제와 평가과제의 차이도 확인할 수 있는 SOA가 된다.

방 법

참가자: 중앙대학교에 재학중인 대학생 32명이 실험 3에 참가하였다. 이중 여학생은 11명이었으며, 남학생은 21명이었다.

실험설계: 실험 1과 동일하였다.

실험재료: 실험 1과 동일하였다.

실험절차: 일반적 절차는 실험 1과 동일하였다. 단지 점화-목표 단어쌍의 SOA를 500ms로 증가시켰다. 점화단어를 200ms제시하고, 300ms 지연 후에 목표단어를 제시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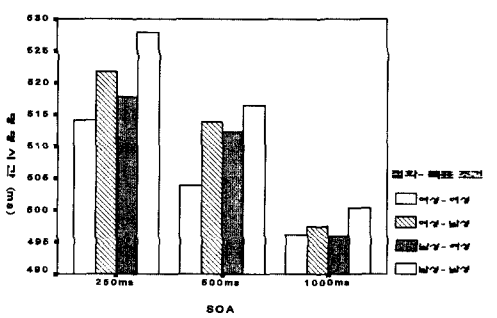
결과 및 논의

명명과제에서 목표단어 명명오류는 거의 없었다. 반응시간이 200ms 이하인 반응과 표준편차 3이상인 반응(790ms)은 분석에서 제외되었다(2.3%). 목표단어의 명명시간 평균이 표 1에 제시되었다. 명명시간을 변량분석한 결과, 목표조건의 주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F(1,30)=5.32$, $MSe=274.47$, $p<.05$). 목표조건에서 여성(508ms)이 남성(515ms)보다 명명시간이 7ms빨랐다. 실험 1에서 나타났던 점화조건의 주효과는 경계수준이었고($F(1,30)=3.20$, $MSe=273.04$, $p=.08$), 참가자의 성과 목표조건의 상호작용은 발견되지 않았다. 그러나 참가자 성의 주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F(1,30)=5.39$, $MSe=274.47$, $p<.05$). 여자(482ms)가 남자(540ms)보다 명명시간이 52ms빨랐다. 단어쌍의 조건별로 분석한 결과, 여성-여성은 남성-남성에 비해서 11ms 빨랐으며($t(31)=2.34$, $p<.05$), 남성-남성은 교차조건(여성-남성, 남성-여성)과 차이가 없었다.

실험 1과 3의 SOA 조건(SOA 250-500ms)이 자동적 과정을 반영하는 것이라면 두 실험에서 일관되는 결과는, 첫째, 여성 범주내 점화효과가 남성 범주내 점화효과보다 일관되게 크다는 것이다. 즉 여성-여성 단어쌍이 남성-남성 단어쌍에 비해서 여전히 명명시간이 빨랐다는 것이다. 이는 사회적 범주로의 성별 고정관념은 여성 범주가 남성 범주보다 속성간 점화효과가 크다는 것을 반영하는 결과이다. 또한 참가자 성에 관계없이 남성 범주보다 여성 범주에 대한 명명시간이 빨랐으며 남자는 남성 속성보다 여성 속성에 대한 명명시간이 여전히 빠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성별 범주의 여성성 단어가 남성성 단어에 비해서 활성화 수준이 높다는 증거가 된다. 즉 성별의 고정관념에서 남성과 여성이 대등한 범주로 표상되지 않았을 가능성을 보다 강하게 시사하는 것이다. 그러나 실험 1과 달라진 결과도 있었다. 첫째, 목표조건과 참가자 성의 상호작용은 사라지고, 남자이든 여자이든 여성단어의 명명시간이 남성단어보다 빨랐다. 둘째, 점화단어의 성별 효과가 약화되었다. 셋째, 참가자 성의 여자가 남자보다 범주의 명명시간이 빨랐다. 이는 SOA가 증가함으로써 범주 속성이 의식적 수준으로 활성화되어 발생하는 결과로 해석될 수 있다.

종합 논의

성별 고정관념의 범주적 표상의 특성을 밝히기 위해서 세 개의 실험을 시간경과적으로 실시하였다. 실험 1에서는 SOA 250ms에서 점화단어의 성별과 목표단어의 성별이 목표단어 명명시간에 미치는 효과를 살펴보았다. 점화단어가 여성단어인 경우가 남성단어인 경우에 비해서 명명시간이 빨랐으며, 목표단어가 여성단어인 경우가 남성단어인 경우에 비해서 빨랐다. 그러나 두 변인간의 상호작용은 나타나지 않았다. 여성-여성 단어쌍이 남성-남성 단어쌍에 비해서 명명시간이 빨랐다. 실험 2는 SOA를 1000ms로 하여 실험 1의 절차를 반복하였다. 실험 3은 SOA를 500ms로 고정시켰으며, 그 결과는 실험 1의 결과와 유사한 결과를 얻었다(그림 1 참조).



〔그림 1〕 SOA의 변화에 따른 점화-목표 조건의 명명시간

고정관념이나 편견에서 나타나는 평가의 일치성 가설은 성별이 일치하는 조건이 일치하지 않는 조건에 비해서 점화효과가 크게 나타난다는 것이다[4][13]. 즉 점화-목표 조건간 상호작용 효과가 나타나야 한다. 그러나 세 개의 실험에서 상호작용은 나타나지 않았으며, 오히려 여성 일치성 효과가 나타났다. 여성-여성 조건이 교차조건이나 남성-남성 조건에 비해서 점화효과가 크게 나타났다(실험 1과 실험 3). 이러한 결과는 이재호 등의 성별 선호도의 평가적 점화효과 연구에서 보여준 긍정단어 점화우위효과와 Klauer 등의 성격특질 긍정성 우위효과와 비교될 수 있다[16][18]. 성별 선호도와 성격특질의 점화효과에서 일치된 것은 긍정적 평가가 부정적 평가에 비해서 점화효과가 크다는 것이다. 이는 평가의 일치성 효과의 예측과는 다른 것이다.

이 연구는 성별 고정관념에서 평가적 속성을 통제하고 성별의 전형성(관련성)에 따른 일치성 효과를 관찰하였다. 인지 일반의 범주 이론에 따르면 동일 범주내의 구성원간 점화가 범주간 점화에 비해서 그 효과가 크게 나타난다는 예측이 가능하다[예, 18]. 이 예측에

따라 성별에 대한 범주적 표상도 인지 일반의 대상 범주와 동일하다면 실험 1과 실험 3에서 여성-여성 조건과 남성-남성 조건은 여성-남성 조건이나 남성-여성 조건에 비해서 점화효과가 크게 나타나야 한다. 그러나 속성의 범주 일치성 효과가 여성 범주에서만 관찰되었고, 남성 범주에서는 관찰되지 않았다. 평가의 일치성 효과를 검증한 연구 결과에서[16][17][18] 긍정-긍정 자극쌍이 부정-부정 자극쌍에 비해서 점화효과가 크게 나타난 것과 유사하게 본 연구의 성별 전형성에서도 여성 범주의 속성이 남성 범주의 속성에 비해서 점화효과가 크게 나타난 것이다. 이는 성별 고정관념의 범주 표상이 인지적 속성과 평가적 속성을 공유하고 있지만 여성과 남성 범주가 배타적이고 대등한 범주로 표상된다고 보기는 어려운 결과이다.

본 연구는 성별의 전형성 효과를 확인하기 위해서 범주간 평가적 속성의 차이를 통제하고자 하였지만(성별 선호도 평정치 남성 평균 3.81; 여성 평균 4.13), 성별 전형성과 성별 선호도의 평정치간의 상관이 .45으로 나타나 전형성만의 독특한 효과를 살펴보기에는 무리가 있었다. 추후의 연구에서는 속성간의 관계를 통제한 후속실험이 요구된다. 하지만 본 연구의 실험 재료의 선호도가 명명시간에 작용했을 가능성을 확인해 보고자 하였다. 성별 선호도의 평정치를 준거로 선호도 점수를 긍정성과 부정성 차원으로 분류하여 조건간의 명명시간을 비교하였다. 긍정-긍정은 533ms, 긍정-부정은 527ms, 부정-긍정은 531ms, 부정-부정은 526ms로 조건간의 차이가 통계적으로 차이가 없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통제한 선호도의 평정치가 성별의 점화-목표 조건의 명명시간에 편향적으로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은 적다고 볼 수 있다.

또한 명명과제는 어휘판단이나 평가판단과는 달리 발성 지연시간을 측정하기 때문에 언어산출과정에서 작동되는 변인들이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예를 들어, 철자법, 발음용이성 및 발음유사성 등이 영향을 미칠 수 있다[23]. 이는 언어체계의 특성과도 연관이 있다. 그 중에서 한국어와 영어간의 철자 심도에서의 차이가 명명과제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러한 논의는 De Houwer, Hermans 및 Spruyt 의 연구에서 찾아볼 수 있다[17]. 이들은 영어는 네델란드어나 독일어에 비해서 철자 심도가 깊기 때문에 영어를 발음하기 위한 과정이 네델란드어나 독일어를 발음하는 경우에 비해서 의미체계가 개입될 가능성이 많다는 지적을 하였다. 따라서 영어권의 명명과제에서는 조건간 차이가 있다는 연구 결과를 얻었지만 유럽어에서는 얻기가 어렵다점을 지적하고 있다. 철자심도에서 한국어는 영어보다는 네델란드어나 독일어에 가깝다고 볼 수 있다. 이는 한국어 발음의 특성이 작용되어 의미적 점화 효과가 약화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이정모와 이재호의 연구에서는 범주 유형에 따른 점화효과를 명명과제에서 얻을 수 있었기에 명명과제 자체의 특성만으로 설명하기에는 적절하지 않다[29].

참가자의 성에 따른 고정관념의 표상은 그 차이가 뚜렷하지는 않지만 두가지 특징적 차이를 보여주고 있다. 첫째는 여자가 남자에 비해서 목표단어의 명명시간이 빠른 경향을 보였으며, 둘째는 여자는 남자에 비해서 성별의 범주 구분에 더 모호하게 반응하는 경향성을 보였다. 이 두 효과는 SOA 250-500ms에서 나타났다. 여자는 여성 속성과 남성 속성의 점화효과가 동일하였고, 남자는 여성 속성이 남성 속성보다 빠르게 명명하였다. 이는 짧은 SOA에서 나타난 결과이며, 긴 SOA 1000ms에서는 성 차이가 사라졌다. 참가자의 성과 시간경과간의 상호작용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여주지는 못했다. 즉 참가자 성에 따른 일치성효과도 분명하지 않았다. 단지 남자가 남성 범주에 비해서 여성 범주에 민감한 결과가 특이하였다.

인지 일반 범주와 사회 범주의 차이

일반적으로 범주의 연구는 대상이나 행위의 개념적 표상을 주로 다루어 왔다며, 대상이나 행위의 표상은 상위 개념을 중심으로 하위 개념과 위계적 구조를 구성하며, 동일 수준에서 개념의 전형성에 근거한 표상이 구성되어 있다고 보았다[25]. 그리고 범주적 판단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으로 지각적 유사성과 현출성을 강조하였다. 사회 인지의 연구자들도 사회적 범주의 표상이 대상 범주와 기본적으로 동일하다고 가정하였다[1]. 그러나 최근의 인지 일반의 연구자들은 범주의 유형에 따라서 범주의 위계성이 분명하지 않다는 주장들이 제기되었고, 범주의 표상에는 지각적 유사성에 더하여 기능적 유사성, 상황적 정보도 포함되어 있다는 주장들이 제기되었다[24]. 예를 들어, 물리적 대상, 물리적 행위, 정신적 행위의 표상이 다르다는 주장들이 제기되었다. 물리적 대상에 비해서 정신적 행위는 표상간의 구분이 분명하지 않다는 것이다[26][27]. 따라서 인지 표상의 전통적 입장인 위계적 표상과 단계적 표상의 가정들이 무너지기 시작한 것이다. 또한 범주 표상이 고정되고 안정적이기보다는 상황적 정보에 따라 표상의 민감한 변화가 일어난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Murphy와 Wisniewski는 동일한

범주 개념이 개별적으로 제시되는 경우에 비해서 상황 장면에 제시되는 경우에 범주의 위계적 구조가 약화된다는 증거를 제시하였고, Ross와 Murphy는 '음식'이 의미 범주(예: 과일)로 규정되는 경우와 각본(예: 다이어트 식품)으로 규정되는 경우에 대상의 범주화 과정과 표상이 변화한다는 증거를 제시하였다[26][27].

그러면 사회적 범주의 표상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Kunda는 사회적 개념은 인지 일반 개념에 비해서 구조적 양상이 불분명하다는 주장을 하였고, 특정 개념의 활성화에는 상황적 요소와 개인적 요소가 동시에 작용한다는 주장을 하였다[2]. 예를 들어, Moskowitz와 Skurnik는 참가자에게 실제 인물을 점화 자극으로 제시한 경우와 성격 특질을 보여준 경우에 고정관념의 활성화과정이 다르게 일어난다는 증거를 제시하였으며, Rudman, 등은 남성이든 여성이든 자신에게 바람직한 고정관념을 선호한다는 증거를 제시하였다[19][22]. 이러한 증거들은 사회적 개념의 표상이 인지 일반의 표상에 비해서 범주의 구성 양식이 다를 가능성을 제시한 것이다. 예를 들어, '남성'과 '여성'은 성별 범주의 하위 범주로 위계적으로 구성되어 하위 범주가 배타적인 표상을 구성하기보다는 위계 수준이 상이한 범주가 서로 연관된 표상(cross categorization)을 구성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28]. 이러한 주장은 본 연구의 결과에서 찾아볼 수 있다. 본 연구에서 동성점화가 이성점화와 차이가 없는 즉 성별 범주의 일치성 효과가 관찰되지 않았고 오히려 여성 범주의 점화와 남성 범주의 점화가 비대칭적으로 나타났다는 것이다. 이러한 결과는 성별 고정관념의 범주가 남성과 여성의 범주로 이분화되어 표상될 가능성이 적다는 시사점을 제공하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 얻어진 결과는 성별 고정관념의 암묵적 표상 구조가 인지 일반의 표상과는 달리 범주간의 대비적 효과가 명확하지 않았고 성별 범주의 속성이 여성인 경우가 남성인 경우에 비해서 점화효과가 크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사회적 개념 혹은 범주로서의 성별 고정관념은 여성과 남성에 대한 고정된 표상을 내재하고 있기보다는 사회적 상황 맥락내에서 융통적으로 구성될 가능성을 시사하는 것이다. 즉 어떤 대인이 나타나는지[30], 어떤 범주를 단서로 하는지[9], 자신과의 연관성은 어떠한지[19] 그리고 그때의 정서나 기분은 어떠한가에 따라 인지 일반의 개념보다 융통적인 표상을 구성할 가능성이 높다는 추론이 가능하다[18][24]. 그러나 이 연구는 성별 속성간의 점화효과만을 살펴보았기 때문에 인지 일반이나 사회적 범주의 이론에서 제안된 상황적 요소나 개인적 요소의 개입 가능성에 대해서는 분명한 결론을 내리기는 어렵다. 단지 그러한 제약들이 제공되지 않는 중성적 조건에서 성별 고정관념의 범주 표상이 어떤 구조를 지니고 있는지를 확인하였다. 따라서 그러한 단서들이 제시되는 조건에서 성별 고정관념의 범주적 표상이 어떤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지에 대한 추후 연구가 있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1] Cantor, N. & Mischel, W. (1979). Prototypes in person perception. In L. Berkowitz (Ed.), *Advances in experimental social psychology*. New York: Academic Press.

[2] Kunda, Z. (2000). *Social cognition: Making sense of people*. Cambridge, Mass.: MIT Press.

[3] McGarty, C. (1999). *Categorization in social psychology*. London: SAGE Publications.

[4] Fazio, R. H., Sanbonmatsu, D. M., Powell, M. C., & Kardes F. R. (1986). On the automatic activation of attitude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0*. 229-238.

[5] Bargh, J. A., Chaiken, S., Raymond, P., & Hymes, C. (1996). The automatic evaluation effect: Unconditional automatic attitude activation with a pronuciation task. *Journal of Experimental Social Psychology, 32*, 104-128.

[6] Greenwald, A. G., & Banaji, M. R. (1995). Implicit social cognition: Attitude, self-esteem, and stereotypes. *Psychological Review, 102*. 4-27.

[7] Banaji, M. R., & Greenwald, A. G. (1995). Implicit gender stereotyping in judgments of fame.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68*, 181-198.

[8] Devine, P. G. (1989). Stereotypes and prejudice: Their automatic and controlled component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6*, 5-18.

[9] Lepore, L., & Brown, R. (1997). Category and stereotype activation: Is prejudice inevitable?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72*. 275-287.

[10] Murphy, G. L., & Lassaline, M. E. (1997). Hierarchical structure in concepts and the basic level of categorization. In K. Lamberts, & D. Shanks (Eds.), *Knowledge, concepts, and categories*(pp. 93-131). Cambridge, Mass.: MIT Press.

[12] Neely, J. H. (1977). Semantic priming and retrieval from lexical memory: Roles of inhibitionless spreading activation and limited capacity attention. *Journal of Experimental Psychology: General, 106,* 225-254.

[13] Bargh, J. A., Chaiken, S., Govender, R., & Pratto, F. (1992). The generality of the automatic attitude activation effect.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62,* 893-912.

[14] Greenwald, A. G., Draine, S. C., & Abrams, R. L. (1996). Three cognitive markers of unconscious semantic activation. *Science, 273,* 1699-1702.

[15] Glaser, J., & Banaji, M. R. (1999). When fair is foul and foul is fair: Reverse Priming in automatic evaluation.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77,* 669-687.

[16] Klauer, K. C., Rossnagel, C., & Musch, J. (1997). List-context effects in evaluative priming. *Journal of Experimental Psychology: Learning, Memory, and Cognition, 23,* 246-255.

[17] de Houwer, J., Hermans, D., & Spruyt, A. (2001). Affective priming of pronounciation reponses: Effects of target degradation. *Journal of Experimental Social Psychology, 37,* 85-91.

[18] 이재호, 오경기, 김미라, 조긍호 (2000). 성별 선호도의 긍정-부정성이 자동적 평가에 미치는 효과. **2000년도 한국심리학회 연차학술발표대회 발표논문집**, 224-225.

[19] Rudman, L. A., Greenwald, A. G., & McGhee, D. E. (in press). Implicit self-concept and evaluative implicit gender stereotypes: self and ingroup share desirable traits.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Bulletin.*

[20] Blair, I. V., & Banaji, M. R. (1996). Automatic and controlled processes in stereotype priming.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70,* 1142-1163.

[21] Deaux, K., & Lewis, L. L. (1984). Structure of gender stereotypes: Interrelationships among components and gender label.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46,* 991-1004.

[22] Moskowitz, G. B., & Skurnik, I. W. (1999). Contrast effects as determined by the type of prime: Trait versus exemplar primes initiate processing strategies that differ in how accessible constructs are used.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76,* 911-927

[23] 이재호, 김성일 (1998). 언어 이해과정의 연구 방법. 이정모, 이재호 (공편), **인지심리학의 제 문제 II: 언어와 인지**. 서울: 학지사.

[24] Barsalou, L. W. (1999). Perceptual symbol systems. *Behavioral Brain Science, 22,* 577-609.

[25] Smith, E. E., & Medin, D. L. (1981). *Categories and concepts.* Cambridge, MA: Harvard Univ. Press.

[26] Murphy, G. L., Wisniewski, E. J. (1989). Categorizing objects in isolation and in scenes: What a superordinate is good for. *Journal of Experimental Psychology: Learning, Memory, and Cognition. 15,* 572-586.

[27] Ross, B., & Murphy, G. L. (1999). Food for thought: Cross-classification and category organization in a complex real-world domain. *Cognitive Psychology. 38,* 495-553.

[28] Lakoff, G. (1987). *Woman, fire, and dangerous things.* Chicago: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29] 이정모, 이재호 (2000). 대상과 행위의 개념적 표상 차이: 명명과제의 점화효과 비교. **한국심리학회지: 실험 및 인지, 12,** 201-214.

[30] Macrae, C. N., Bodenhausen, G. V., Milne, A. B., Thorn, T. M. J., & Castelli, L. (1997). On the activating social stereotypes: The moderating role of processing objectives. *Journal of Experimental Social Psychology, 33,* 471-489.

부록 1. 실험재료

전형 단어		비전형 단어	
남성단어	여성단어	남성단어	여성단어
군대	화장	여유	조용한
수염	가슴	고집	계산적
힘센	꾸미는	똑똑한	신경질
바지	눈물	잘난척	성실한
강인한	예쁜	이기적	순종적
건장한	긴머리	둔한	내성적
명예욕	치마	거친	냉정한
늑대	감성적	날카로운	이중적
듬직한	아름다운	무식한	구두
넓은어깨	질투	나약한	소극적